Annual Report 201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차보고서 2014



목차

01 감사 메시지

02 여는 글

04 초록빛 인연

08 월별 재단 뉴스

12 모금액과 재단 살림

16 초록우산을 펼친 곳

18 국내아동 지원

24 해외아동 지원

30 북한 지원

31 아동권리옹호

32 아동복지연구

34 홍보대사, 나눔대사

36 올해의 칭찬 인물



201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발행일 2015년 3월 24일 / 발행인 지훈상 / 편집인 이제훈 / 주소 (100-17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기획 · 편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실 / 후원문의 1588-1940 편집 02-775-9122 / 인쇄 ㈜재능인쇄 / 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28만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4년 한 해에도 어린이를 아끼는 마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국내외 후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와 경제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어린이들이 용기를 갖고 꿈을 키우도록 도우며
2014년을 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빈곤가정 어린이들의 의식주 지원을 이어가면서,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예컨대 〈2014 아동정책 공약집〉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어린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아동복지 NGO들과도 연대해 '아동학대특례법' 발효 및 정부의
예산 증액을 통과시키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구촌 빈곤아동의 보건·위생·의료·교육·자립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빈국 남수단에 이어 60여 년 전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러나 지금은 빈곤한 나라인 에티오피아와 미얀마를
집중 지원국가로 선정해 아동을 구호했습니다.



2015년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비영리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아동복지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성교육, 아동보호, 권리옹호 등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신규 지원국가를 확충하고, 국제어린이재단연맹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손과 손에서 펼쳐지는 초록우산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 재훈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지구촌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옷도, 신발도
작년보다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느새 자란 아이들의
키만큼이나 어쩌면 여러분도
조금 더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를 돕는다는 것은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는 뜻이니까요.

어린이의 몸도,
어른의 마음도 함께 키우는
나눔은 모두에게 좋은
동반성장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던 자립형 사립고에 합격해 생애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중학교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양현열 후원자님 덕분이에요.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신 후원자님과 늘 곁에서 지켜주는 재단에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꿈을 이루고 나면 저 역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박지원 | 고등학교 1학년, 인재양성 후원아동

"지원이는 공부도 잘하지만 아빠와 할머니, 몸이 아픈 동생을 챙길 줄 아는 보기 드문 아이예요. 지원이를 볼 때마다 기특하고, 딸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해요. 미래에 대한 꿈과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돕는 것은 사회를 선순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꿈에 투자한다는 즐거움은 후원금 30만 원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양현열 | 웅상종합상사 대표, 박지원 양 후원

아무도 나누려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을 주고 받았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초록우산과 인연을 맺은 후, 삶에 즐거운 변화가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해외 어린이를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외아동서신번역을 지원하게 됐죠. 먼 나라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쓴 편지를 번역하다 보면 후원의 감동을 최전선에서 느끼게 된답니다. 그 감동을 공유하고 싶어 동생에게도 번역 봉사를 함께 하자고 권유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해 알아보기 힘든 단어를 함께 살피면서 해석해주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대학생으로서 학업도, 자기계발도 열심히 해서 졸업 후 사회인이 되면 저희도 후원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소식을 후원자님께 전하는 감동 배달부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김지현 · 김송연 | 대학생, 해외아동서신번역 봉사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고 어찌 모른척할 수 있겠습니까? 1985년부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전국후원회장을 맡았는데, 어느덧 30년이 흘렀네요.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이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습니다. 저 최불암도 우리 사회가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오늘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전국후원회 여러분, 그리고 28만 후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불암 | 배우, 전국후원회장



"임시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돕기 위해 알아보다가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어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장성한 친아들들도 지우를 좋아하고, 동생처럼 잘 챙겨줘요. 헤어짐의 순간은 늘 마음 아프지만 원래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위탁부모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빈자리로 슬프거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줄 생각이에요."

이도재 · 원소영 | 손지우(가명) 군 위탁 부모



지난 한 해 재단에 있었던 일

1월

6일 | 추신수재단과 협약 체결
추신수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딴 추신수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환아 5명과 결연을 맺고, 치료비 · 생활비 · 인재양성비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2월

20일 | 인재양성 아이리더 5기 선발
체육 · 예술 · 학업 분야에 재능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리더' 5기 117명을 선발했습니다.

23일 | 내전으로 고통 받는 남수단 긴급구호
재단이 국가사무소를 운영 중인 남수단에 내전이 일어나 최소 사상자 1만 명, 피난민 5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긴급구호팀을 급파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난민 밀집 지역이자 우간다와의 접경지역인 니믈레에 임시 텐트를 설치해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3월

6일 | 국내 복지사각지대의 아동 현황 발표
재단의 산하기관인 아동복지연구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아동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수는 추계 약 67만 명, 전체 아동 가구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 북한에 영양물자 보급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아동과 임신부를 위해 밀가루, 영양 콩가루 등 200톤을 전달해 5만 3249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일 | '세계 물의 날' 맞아 청계천 옥외 설치물 전시
빈곤국가의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는 캠페인 'WATER 4 CHILD'을 널리 알리고자 청계천에 아프리카 어린이가 대형 빨대를 꽂고 청계천 물을 마시는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4월

15일 | 꼬마버스 타요, 홍보대사로 위촉
꼬마버스 타요가 재단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관심버스로 변신한 타요는 시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실종아동찾기를 도왔습니다.

24일 |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유가족에 후원금 전달
세월호 사고 직후 긴급구호팀을 구성,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와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생존자 2명이 재단에서 도움 받고 있던 학생임을 확인하고 깊은 위로와 함께 긴급 생계비를 전달했습니다.







재단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전으로 위협받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애도하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주요 활동들을 되돌아봅니다.







5월

1일 | 어른이날 공익 CF 론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어른이날' 광고를 론칭했습니다. 고두심, 염정아, 채시라, 민경훈 등 스타들이 재능기부한 광고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20일 | 차일드팟 제막식 개최

어린이를 새싹에 비유한 차일드팟 대형 화분의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아동 성폭력 근절 광고 공모전으로 인연을 쌓은 광고인 이제석씨가 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22일 |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재단을 포함한 51개 아동 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 아동보호기관의 확충과 인력 보강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6월

9일 | '사랑 하나 더' 캠페인 영상 공개

후원자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정기후원을 신청하고 나눔을 선물하는 '사랑 하나 더' 캠페인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배두나 · 박보영 · 유희열 · 윤종신 · 허지웅 등 스타 10인이 참여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2일 |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 기념 티셔츠 배포

학교 대신 일터로 향하는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강영호 사진작가와 함께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7월

10일 | 대한민국 상생경영대상 최우수재단 선정

'2014 대한민국 상생경영대상'에서 재단이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부문 최우수재단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30일 | 지방선거 당선자 〈아동 공약 지도〉 공개

6.4 지방선거 당시 아동의 안전 · 인성 · 권리와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던 당선자들의 공약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아동 공약 지도〉를 제작해 당선자들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8월

27일 |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긴급구호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이 에볼라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라이베리아 및 시에라리온 지역에 의료품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한편 재단은 긴급구호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9월

18일 | 삼일투명경영대상 아동부문상 수상
건전한 운영, 투명한 후원금 집행 등 아동복지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재단이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아동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29일 | 아동보호특례법 발효
그동안 아동복지단체들과 연대해 관련법 개정 및 예산 확충 등을 촉구한 끝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10월

4일 | 제1회 초록우산 천사데이 기념식
후원자님들과 함께 '제1회 초록우산 천사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신규 후원자가 된 1004인의 이름으로 청계천에 우산 1004개가 설치됐으며, 배우 김윤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10일 | 제10회 이홍렬의 락락페스티벌 개최
스타들의 재능기부 공연과 애장품 경매로 꾸며지는 '이홍렬의 락락페스티벌'이 이날 10회를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7억 1900만 원은 어린이 급식비, 난방비, 교육비 등에 사용됐습니다.

11월

4일 | 나눔음악회에 후원자 초청
후원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제3회 나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인재양성 후원아동과 재단 홍보대사인 가수 인순이, 아나운서 김경란, 배우 김윤진 등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5일 | 고운문화상 봉사부문 대상 수상
제25회 고운문화상에서 재단이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운봉사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0일 | 스몰보이스빅드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제어린이재단연맹에서 44개국 아동 60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 3명 중 1명(32%)이 현재 아동보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신체 · 정신적 학대에 대한 보호 부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6일 | 40년 만에 찾은 모녀 상봉 주최
재단 산하기관인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실종아동 이정미(현 윤정미) 씨가 40년 만에 그리운 모친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23일 | 송일국 · 삼둥이 부자 이모티콘 수익금 기부
배우 송일국과 다음카카오의 매칭 기부를 통해 대한 · 민국 · 만세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수익금을 소외계층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2014년에 펼친 주요 캠페인

깨끗한 물을 어린이에게 'WATER 4 CHILD'
후원자 2373명의 참여로 가나 구불라하구 지역에 우물을 세우고, 식수 · 위생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는 우간다와 남수단 어린이를 위한 식수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아동보호 캠페인 'free'
아동폭력과 노동착취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어린이재단연맹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157개국에서 모은 28만 5000명의 서명이 지난 12월 UN에 전달됐습니다.

아동주거환경개선 캠페인 '집으로'
국내 약 130만 명에 이르는 주거빈곤 아동을 위해 2만 6102명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고, 후원금 1억 5759만 887원을 빈곤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후원 동참 캠페인 '사랑, 하나 더'
유희열 · 윤종신 · 허지웅 등 스타들의 릴레이 후원과 재능기부 덕분에 자녀, 태아, 연인 등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후원에 동참하는 '사랑, 하나 더' 캠페인에 2500여 명의 후원자가 모였습니다.



MBC 특별기획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23년간 백혈병, 소아암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지원해온 〈어린이에게 새생명을〉과 함께 2014년에는 1122명의 후원자를 유치해 모금액 10억 5042만 6050원을 난치병 환아들에게 전했습니다.

KBS 모금방송 〈사랑의 리퀘스트〉
KBS와 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사랑의 리퀘스트〉가 17년의 긴 여정을 끝내고 2014년 12월 27일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1997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864억 여 원의 후원금을 4만 6000여 명이 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KBS 특별기획 〈희망로드 대장정〉
배우 김지호와 함께한 〈희망로드 대장정〉 '네팔'편이 방영된 이후 1188명의 후원자가 나눔에 동참해 2855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KBS 라디오 〈희망충전 대한민국〉
카카오톡을 통해 KBS 라디오와 플러스친구를 맺은 사용자와 라디오 청취자 총 20만 3477명이 후원의 뜻을 밝혀 5억 4364만 9106원의 후원금이 소외계층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SBS 나눔방송 〈희망TV SBS〉
국민배우 고두심 나눔대사와 함께한 〈희망TV SBS〉 '인도네시아'편의 방영으로 후원자 4406명, 후원금 12억 2727만 원이 모금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SBS 휴먼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방송을 통해 1800여 명이 후원에 참여해 1억 1447만 6000원이 모였으며, 이 후원금은 55명의 환아를 지원하고 40여 개 노후한 지역아동센터를 개 · 보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2014 모금액

104,971,537,000



전년대비	모금액(원)
2013년	101,842,217,000
2014년	104,971,537,000
증감추이	+3,129,320,000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마음만은 더 따뜻해졌나 봅니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훨씬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원자 분들이 마음을 나눠 28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모금액 역시 31억 2932만원이나 늘었습니다. 마음을 베풀어주신 모든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 정기후원자

283,160



전년대비	정기후원자(명)
2013년	238,422
2014년	283,160
증감추이	+44,738

귀중한 후원금, 이렇게 쓰였습니다



수입	금액(원)	비율(%)
후원금	104,971,537,000	72.7
수익사업	2,638,248,000	1.8
보조금	30,487,704,000	21.1
기타(이용자 부담금,잡수입)	6,286,685,000	4.4
계	**144,384,174,000**	**10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투명한 회계관리 및 조직 운영, 성실한 사업 보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률 제12844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사업을 진행하며 사용 결과를 보고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 1049억 7153만 원, 총수입 1443억 8417만 원이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여러분의 귀한 후원금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국내외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인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출	금액(원)	비율(%)
국내사업비	122,554,883,000	84.9
해외사업비	14,283,149,000	9.9
운영비	3,811,447,000	2.6
차기이월금	3,734,695,000	2.6
계	**144,384,174,000**	**100%**

* 금액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백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비율은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삼정회계법인,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습니다.

지구촌 어디든 초록우산이 곁에 있습니다



남수단
지역개발(결연), 교육, 식수 · 위생, 인도적지원

에티오피아
지역개발(결연), 교육

우간다
지역개발(결연), 교육, 보건 · 의료, 식수 · 위생

세네갈
지역개발(결연), 교육, 자립지원

시에라리온
지역개발(결연), 인도적지원

라이베리아
인도적지원

모잠비크
지역개발(결연), 교육, 보건 · 의료, 식수 · 위생, 자립지원

케냐
지역개발(결연), 교육, 자립지원, 식수 · 위생

가나
보건 · 의료, 식수 · 위생

부르키나파소
지역개발(결연), 교육, 식수 · 위생

말리
보건 · 의료

볼리비아
지역개발(결연), 식수 · 위생

미얀마
교육

스리랑카
지역개발(결연), 교육

필리핀
인도적지원

인도네시아
교육

베트남
지역개발(결연), 교육, 보건 · 의료, 자립지원

라오스
교육

캄보디아
지역개발(결연), 교육

이라크
인도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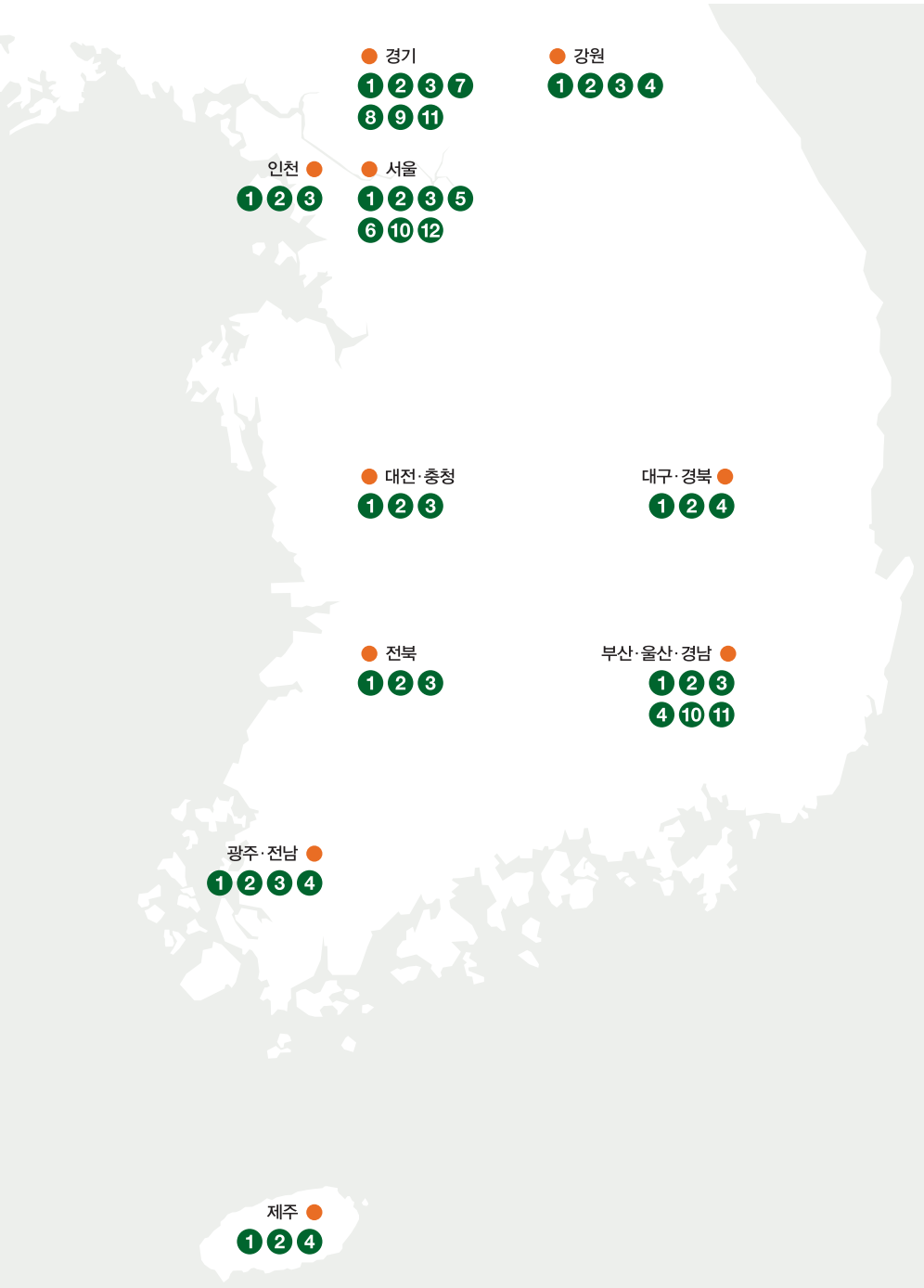
몽골
보건 · 의료

네팔
자립지원

동티모르
지역개발(결연), 보건 · 의료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와 남미에도 초록우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 및 전 세계 23개국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초록우산을 쓸 수 있었습니다.



❶ **지역본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❷ **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가족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❸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과 연계해 사랑 받으며 자라도록 돕습니다.

❹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합니다.

❺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❻ **아이존**
정서, 행동, 관계 형성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❼ **한사랑학교**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동등하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❽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아동이 재활치료와 특수교육을 받고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❾ **한사랑장애영아원**
장애 영 · 유아를 위해 안정된 주거공간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❿ **초록우산 교육센터**
아동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부모, 교사를 교육합니다.

⓫ **초록우산 마을**
아이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이웃과 협력하며 사회성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⓬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내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4년 기준)

우리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내용	금액(천원)	비율(%)
생존	40,876,970	33.4
보호	26,166,620	21.3
발달	31,458,746	25.7
기타	23,324,072	19.0
연구사업	728,425	0.6
총계	122,554,883	100%

* 아동권리옹호 활동에 사용된 기금은 보호 및 발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액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백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비율은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어린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각종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받고 꿈을 펼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UN아동권리협약상에 명시된 아동 권리를 옹호하며 어린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생존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도록 생활비 지원

저소득 가정의 큰 부담은 임대료 및 월세입니다. 재단은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도왔습니다. 또 난방비, 생필품비, 등 · 하교 교통비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빈곤 청소년에게는 교복비,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의 학습비를 지원했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에게는 의료비를, 마음이 아픈 아이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업비 371억 원 | 지원 아동 4만 211명

끼니를 거르는 아이가 없도록 급식 지원

보호자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전국 8개 복지관을 통해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어려운 아이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고, 혼자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은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식당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원 아동 1690명





보호

위험 상황은 재단이 개입해 아동보호

7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현장에서 개입,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이가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나도록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학대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룹홈에서 생활하도록 도왔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지원 아동 1828명 | 일시 보호 207명

아이 스스로 폭력을 예방하도록 교육

우리 사회에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CAP(아동폭력예방), NO-Bullying(학교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인원 29만 4716명

실종 · 유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실시

매년 급증하는 실종 · 유괴 사건을 방지하고자 아이들에게 실종 · 유괴를 막는 예방법을 알려주고, 혹여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대처법을 반복 훈련했습니다.

교육 아동 22만 4555명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게 가족 지원

재단 산하의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2014년에도 실종아동과 실종자 가족을 위해 아동을 찾는 사진 홍보를 돕고,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가족 수 411명



가족 품 안에서 자라도록 위탁가정 연계

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을 발굴하거나 아이가 친척들의 보살핌 아래 생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잘 적응하도록 아동과 위탁부모를 위한 상담, 심리치료, 문화체험활동 또한 진행했습니다.

위탁 아동 1만 1245명

양육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교육 실시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재로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모가 내면의 힘을 기르고, 문제해결력을 키워 부모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 인원 695명

아이가 혼자 외롭지 않게 보육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나 보호자 부재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전국 17개 사회복지관, 13개 지역아동센터, 6개 방과후교실, 3개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보육 아동 7076명 | 어린이집 보육 아동 177명 | 방과후교실 보육 아동 261명 | 지역아동센터 보육 아동 326명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및 교육 지원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한사랑마을, 한사랑장애영아원, 한사랑학교를 운영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학습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활치료 아동 279명





발달

문화예술 활동 참여로 소외감 극복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했습니다. 11개 오케스트라와 4개 합창단에 소속된 어린이 980명은 합주와 합창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무대에서 성취감을 얻으며 자존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인원 790명 | 합창단 인원 190명

재능 있는 아이들의 꿈 지원

아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학업 · 예술 · 체육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전문 교육과정 연계비와 교재 · 교구 구입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해 꿈을 펼치도록 도왔습니다.

사업비 7억 7000만 원 | 양성 인원 109명

마음이 아픈 아이는 상처 치유

심리,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소아 · 청소년 주간치료센터인 양천아이존과 복지관 내 아동가족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아동 3013명

놀며 배우도록 장난감 도서관 운영

아이들이 장난감을 매개로 한 안전한 공간에서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국에 15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놀이교육은 물론 오감발달 프로그램과 레고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이용 인원 3만 916명





학업 이외의 사회교육 기회 제공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를 선정, 전국 17개 복지관을 통해 사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영어 등 외국어분야, 피아노 · 바이올린 등 예술분야, 요리 ·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분야로 분류해 진행됐습니다. 또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습능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사회교육 인원 3662명 |

학습능력증진 프로그램 인원 605명

인성이 바른 아이로 육성

아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초록우산 인성교육'을 개발해 교육에 즐겁게 참여하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왔습니다.

교육 아동 1763명



나라 밖 어린이들을 돕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비율(%)
지역 개발(결연)		6,415,439	44.9
기금	교육	4,046,647	28.3
	보건 · 의료	905,163	6.3
	식수 · 위생	778,031	5.5
	자립지원	401,857	2.8
	인도적지원	796,340	5.6
국제협력		939,672	6.6
총액		14,283,149	100%

* 금액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백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비율은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끼니를 굶고, 질병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재단에서는 경제적 빈곤과 부족한 보건 인프라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 맞춤형 계획을 세워 적극 지원합니다.

교육

캄보디아 스바이리엥, 문해교육 실시

지역아동의 읽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이 잘 유지되도록 15개 초등학교 교사와 도서관 사서에게 교수법을 전수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22개 초등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 | 수혜 인원 3만 6192명

베트남 킴보이, 유치원 교실 증축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산간지역 및 소수민족 아이들을 위해 꾸오이하 유치원에 교실 2동을 증축했습니다.

사업비 4800만 원 | 수혜 인원 300명

미얀마 만달레이, 컴퓨터 교실 지원

빈민촌에 있는 칸테콘수도원학교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교육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컴퓨터교실에는 총 30대의 컴퓨터가 설치됐고, 컴퓨터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 | 수혜 인원 1115명

세네갈 티에스, 수업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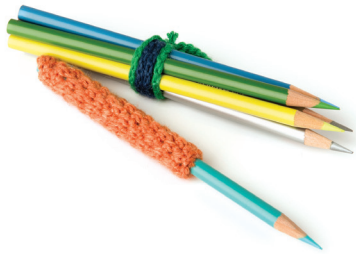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다라학교(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 학생들이 밥을 구걸해 끼니를 때우지 않도록 영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열악한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초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비 6억 6164만 4000원 | 수혜 인원 315명

남수단 구기, 초등학교 지원

전쟁으로 황폐화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2동을 건축했으며, 스쿨키트 327개와 책걸상 159개를 제공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한 교사 5명을 채용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받도록 힘썼습니다.

사업비 4730만 2188원 | 수혜 인원 2640명







보건·의료

가나 아마사만, 질병 조기치료 및 인식 개선

아마사만 지역의 풍토병인 부룰리궤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치료했습니다. 부룰리궤양은 궤양성 박테리아균이 피부에 침투해 살을 파고드는 질병으로 심하면 신체 일부분을 절단하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주민들이 조기에 치료받도록 보건교육을 하고, 급식소를 마련해 영양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5079만 6120원 | 수혜 인원 174명

케냐 나레토이, 여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나레토이 지역의 마사이부족 여자아동들이 스스로 몸을 지키도록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족의 관습에 따라 여성할례를 겪은 여아들은 생명을 잃거나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여아들이 인식을 개선하도록 보건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여성용품이 없어 월경기간에 등교하지 못하는 여아 500명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2억 원 | 수혜 인원 986명

베트남, 호치민 등 6개 지역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증 발급

단돈 9달러가 없어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증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지병이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빈곤계층 주민들은 1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비 9400만 원 | 수혜 인원 1만 545명







식수·위생

케냐 타라카-니티, 깨끗한 식수 지원

양동이로 물을 길어오던 농가들이 손쉽게 농업용수를 이용하도록 지역의 124가구에 수동식 관개펌프를 설치했습니다. 또 빗물이나 강에서 물을 길어 식수로 마시던 880가구에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정수알약을 배급했습니다.

사업비 3억 원 | 수혜 인원 549명

가나 구부라하구, 식수 위생환경 개선

지역 내 식수 ·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9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동식 우물 3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지역 보건소를 개 · 보수해 마을 주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사업비 4922만 3320원 | 수혜 인원 3000명







자립지원

모잠비크 자발라, 생활환경 개선 및 취업 지원

교육, 사회, 경제 혜택으로부터 고립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 · 유아를 교육하고, 빗물 집수 장치를 설치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취업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IT센터를 건립해 정기적으로 컴퓨터 강좌를 열었습니다.

사업비 5272만 5000원 | 수혜 인원 8264명

모잠비크 자발라, 주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VS&L(소액 저축 및 대부, Village Savings & Loan group) 서비스를 제공해 저축습관을 기르고, 대출받은 자본금으로 창업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양계장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 수혜 인원 14만 35명

세네갈 티에스, 여성의 소득 창출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력해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도록 여성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은데이다라'라고 불리는 지역여성모임을 지원해 바구니, 옷감, 식재료 등을 판매하면서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업비 6억 6164만 4000원 | 수혜 인원 148명





인도적 지원

남수단, 내전 피해 아동 구호

2013년에 발생한 내전으로 난민 190만 명, 민간인 사상자 1만 명이 발생해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임시학교 3군데, 정규학교 1군데를 건립하고 6개의 우물을 세웠습니다. 식량키트 2500개, 모기장 1만 개, 천막 2500개, 교육키트 2624개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8억 5927만 8000원 | 수혜 인원 11만 1346명

이라크, 시리아 난민 지원

2011년 발생한 내전으로 약 23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이라크 국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겨울 방한복을 지원했으며 여름에는 피부병과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840개 물탱크와 950개의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4081만 6000원 | 수혜 인원 3946명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에볼라바이러스 피해 지원

에볼라바이러스로 인해 시에라리온 및 라이베리아에 8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에라리온 보호소에서는 피해아동과 가정에 쌀 200가마와 위생용품 200여 개를, 라이베리아의 피해가정에는 쌀 100가마를 지원했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 예방 수칙 포스터 1500부를 배포했으며 에볼라바이러스로 가족을 잃은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 | 수혜 인원 시에라리온 93명, 라이베리아 230명





북한의 어린이들을 돌봅니다

북한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재단에서는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다각도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영양식을 제공하고, 병원을 개·보수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 · 유아 및 임신부 영양 개선

반복되는 가뭄과 수해로 영양결핍을 겪는 북한의 남포지역 아동과 임신부를 위해 영양개선물자 200톤을 보냈습니다. 밀가루 179.2톤과 비타민 · 무기질이 함유된 영양콩가루 20.8톤은 2014년 민간단체의 북한 인도적 지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영양물자는 육아원과 유치원의 어린이 2만 3633명, 임신부와 산모 2만 9616명, 총 5만 3249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업비 약 2억 원 | 수혜 인원 5만 3249명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어린이의 권리가 실현되고 존중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재단은 사회환경과 정책 및 제도가 아동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며 아동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냅니다.

어린이를 배려한 정책 · 제도 제안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 어린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도록 '천만을 위한 선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 전에는 '어린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 정당 및 주요 후보자에게 전달했으며, 당선자 확정 후에는 〈아동 공약 지도〉 및 〈2014 아동 정책 공약집〉을 발간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캠페인 전개

지구촌 아이들을 폭력과 노동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아동보호 'free'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울주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 마련을 꾸준히 요청해 2015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외에도 아동학대 및 실종 · 유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4 아동학대 착한 신고' 캠페인과 '실종 · 유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의 행복이
초록우산의 꿈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 것이 재단의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회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합니다. 아동복지의 현 주소와 쟁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로 아동복지의 실천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동 행복을 위한 연구 진행

재단 산하의 아동복지연구소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행복한 아동'과 '안전한 환경'을 테마로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빈곤아동가구 현황분석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민간단체(NGO)의 역할 모색: 북한아동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등 총 17건의 연구조사를 통해 증거기반 실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국내아동을 위한 '초록우산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해외아동을 위한 CPSP(아동심리사회프로그램, Children Psycho-Social Program)를 개발해 교육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초 · 중 · 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눔 교육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아동복지포럼 열어 논의의 장 구축

〈아동복지적 접근에서의 인성교육〉, 〈아동 환경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한 아동복지포럼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환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아동권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 개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만의 고유 지표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현주소와 권리 보장 정도를 파악해 아동 권리 옹호의 실천 근거로 삼고자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주제 개발 및 관심 환기

역량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를 위한 어린이 연구원 위촉

제2기 어린이 연구원 그린이(Greeny)를 위촉해 '대한민국 아동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아동 권리의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제기한 쟁점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구 결과는 사회에 전달해 주요 방송사 및 일간지에 총 55회 보도되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정책 제안 및 동광(童光) 발간

아동복지 학계 전문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아동 복지 정책(안)' 마련을 위한 정기 제안을 실시했습니다. 또 학계와 현장을 이어주는 소통의 매체인 아동복지전문연구지 〈동광(童光)〉 제109호를 발간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초록우산의 얼굴들입니다



최불암 | 배우, 1985년 위촉
28만 명의 후원자를 대표하는 전국후원회장으로서 어린이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특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홍렬 | 개그맨, 1998년 위촉
10년째 기부콘서트를 직접 기획 ·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173명을 후원해 지난 9월에는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고두심 | 배우, 2006년 위촉
SBS 〈희망TV SBS〉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경란 | 아나운서, 2010년 위촉
'나눔 조합'을 결성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고, 각종 공연에서 진행을 도맡아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염정아 · 허일 부부 | 배우 · 의사, 2011년 위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무료로 수술했으며, 각종 캠페인에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추신수 | 야구선수, 2011년 위촉
추신수재단을 통해 후원금 1억 원을 쾌척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및 환아 5명의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뽀롱뽀롱 뽀로로 | 애니메이션 캐릭터, 2011년 위촉
재단에서 발간하는 〈실종 · 유괴 예방 워크북〉의 표지모델로 행사장에서 시선을 주목시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순이 | 가수, 2012년 위촉
해밀학교를 설립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을 도우며, 재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멋진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성봉 | 팝페라 가수, 2012년 위촉
또 다른 '한국의 폴포츠'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롤모델로서 무대와 봉사활동 현장에서 진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 사진작가, 2012년 위촉
차별화된 작품세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빈곤국가 어린이들의 실상을 렌즈에 담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이외수 | 소설가, 2012년 위촉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사연을 SNS에 올려 세상에 알리고, 해마다 그림경매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씨도 예쁜 월드스타 배우 김윤진
"그동안 모성애를 발휘하는 역할을 많이 맡아서 그런지 실종아동찾기 광고에 목소리를 기부한 것이 더 뜻깊게 다가왔나 봐요. 앞으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참여하겠습니다."



김수영 | 작가, 2012년 위촉
10대들의 '꿈 전도사'로서 해외 빈곤국가 어린이들을 후원하며 해외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태 | 배우, 2013년 위촉
아들 야꿍이와 함께 쿠킹클래스를 진행해 200쌍 이상의 부자(父子) 후원자를 모집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실종아동찾기에 나선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 홍보대사 '꼬마버스 타요'예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출동 대기! '꼬마버스 타요'가 함께합니다."



전광렬 · 박수진 · 전동혁 가족 | 배우 · 패션 스타일리스트 · 학생 | 2012년 위촉
매년 자선파티인 '행복한 하루'를 직접 기획 · 진행해 해외빈곤아동돕기 기금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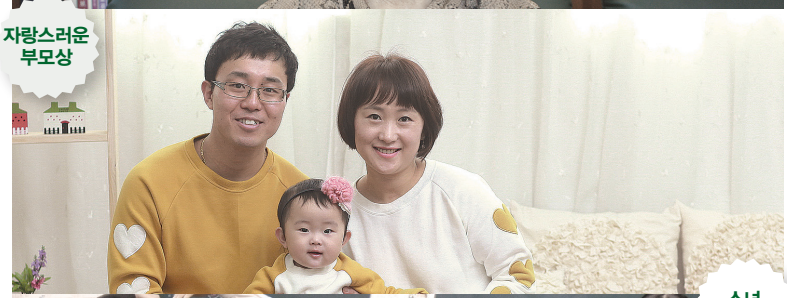
공익을 추구하는 광고인 이제석
"재능은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어 좋아요.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로 소통하겠습니다."

2014 고운 마음 초록우산 시상식


나눔 리더상


릴레이 나눔상


위대한 유산상


자랑스러운 부모상


소녀 천사상

나눔 리더상 | 이천화 후원자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이름으로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후원하고 매년 해외 자원봉사에도 참여하는 이천화 후원자. 직장에서는 사회공헌동아리 '좋은 사람들'을 창단해 해마다 8~10회 군포 인근 지역의 주거 개 · 보수를 돕고 있습니다.

릴레이 나눔상 | 심영숙 후원자
강원 동해시 추암해수욕장 입구에는 '예쁜언니네' 트럭을 운영하며 분식을 판매하는 심영숙 후원자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중 '현대차 기프트카' 캠페인을 통해 트럭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며 현재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상 | 손혜연 후원자
손혜연 후원자는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소개된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자신의 유산인 아파트 보증금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훗날 난치성 질환이나 수술비가 없어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부모상 | 김정수 후원자
2005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은 김정수 후원자는 딸 가율 양의 돌잔치 축의금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율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는 토대가 되도록 돌잔치 축의금을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녀 천사상 | 충주여고 학생회
'배워서 나누자!' 충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1학급 1아동 결연 후원을 맺었습니다. 용돈을 모아 학급당 최소 1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후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생회는 졸업 후에 후원 통장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후원 참여 안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67년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구촌 어린이들을
보살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가난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아이들,
부모와 어른들로부터의 폭력에 고통받는 아이들,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영 · 유아들,
3만 원이면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빈곤국가 아이들.

아주 조금의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아이들은 내일을 살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8만 3160명
2014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동행한 분들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어린이의 내일을 여는 일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588-1940 /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hildfundkor
트위터 twitter.com/childfundkorea / 해피빈 happylog.naver.com/kwf6693.d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00–17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588–1940